

# “주말엔 갈 곳 없어…누워 있으면 허리뼈 시려요”

## 쪽방촌 주민의 힘겨운 겨울나기

동구 대인동 여관촌…사고·부도로 내몰린 주민들  
찬바람 새는 주거 환경…전기장판·온풍기에 의지

“보일러를 틀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휴일에는 공공기관도 안 열어서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21일 광주 동구 대인동의 오래된 여관촌.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5도까지 떨어지면서 낡은 여관 건물들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난 채 문틈마다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김복연씨(60)가 생활하는 방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은 전기장판과 1만원짜리 미니온풍기가 유일한 난방 수단이었다.

~3평 남짓한 좁은 공간은 전기장판을 켜도 잠시만 따뜻한 뿐 금세 냉기로 기득했다. 김씨는 “방 안의 기온이 밖과 별 차이가 없다.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춥다”고 말했다.

말했다.

김씨는 원래 건설현장 일을 했다. 손도 아무제 남들이 깨리는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3년 전, 퇴근길에 당한 뻥소니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삶이 송두리째 훼손됐다.

긴 병원 생활 후 복귀한 현장은 그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다. 장애가 남고 일도 끊기면서 여러 고시원과 짐질방을 전전하다 결국 이곳 쪽방촌에 들어왔다.

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그는 종종 술에 기댔다.

김씨는 “몸이 아프고 일도 못 하니 술에 기대게 되더니”며 “방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술이 먼저 떠오른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복연씨는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영하 7.5도의 추위를 전기장판과 온풍기에 의지해 버티고 있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끼니 해결도 쉽지 않다. 평일 오전엔 무료급식소를 찾아 점심을 해결하지만, 주말엔 방 안에서 가스버너로 끓인 라면 등 즉석식품이 전부다.

김씨는 “뜨거운 것을 먹어도 방이 너무 차서 금방 썩어버린다”며 “빨래 역시 찬 물로 할 수 없어 대부분 외부 시설을 이용

았다.

문씨는 “겨울에는 바닥이 너무 차서 누워 있으면 허리뼈가 시릴 정도다”고 말했다.

난방 시설이 안 된 방 바닥에서 냉기가 차오르고, 이불을 몇 겹 덮어도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는 “겨울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아 사워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추위를 참고 버티다 감기로 앓아누운 적도 많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겨울이 힘들었던 건 ‘고립’이다. 쪽방촌 주민들은 건강, 가족 문제, 사업 실패 등으로 삶의 기반을 잃고 이곳에 모여든 경우가 많아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다 보니 방 문을 닫고 혼자 지내기 일쑤다.

문씨는 “한때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다. 정말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추위와 외로움을 견딜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두렵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글·사진=연예용 기자 djawodyd0316@

## 동구, 지역 문화유산 보존·정비 나선다

3억7000만원 투입…서석초 체육관·허백련 춘설헌 등

광주 동구가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동구는 지역 주요 문화재의 보존과 시민들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총 3억7350만원을 투입해 문화유산 정비 사업 4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광주 서석초등학교 체육관, 조선대학교 본관,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허백련 춘설헌 등이다.

이중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서석초 체육관 보수 사업은 전문가 자문과 설계 용역, 관련 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2 월까지 체육관 미루 보수를 진행한다.

1930년에 건립된 체육관은 내부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는 점이 특징으로, 동구는 체육관 내부 바닥 마루 보수 공사를 추진해 문화유산 가치(국가등록문화유산 제17호)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 제94호인 조선대학 교본관 내부 보수도 진행된다.

조선대 본관은 1946년 7만2000여명의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원들이 뜻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고, 1947년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으로 건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직원과 학부모가 힘을 모아 1954년에 완공했다. 건물의 길이는 375m로, 건축 형태가 독특한 점 외에 설립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광주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며 “정비 사업을 통해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보물)은 배수체계 등 정비 사업을 통해 3월까지 헌수정비, 마사토 포장 등을 추진한다. 사업비 9000만원(국비 6300만원·시비 2700만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오층석탑과 불교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확인한다.

동구는 사업비 6891만원(시비 5857만원·구비 1033만원)을 투입해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허백련 춘설(광주시 기념물 제5호)의 처마·벽지 교체, 부엌·부뚜막 보수를 추진한다.

춘설헌은 한국화의 대가 이재 허백련이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1977년까지 30년간 살면서 작품활동을 하던 곳이다.

1950년 중래의 낡은 집을 헐고 벽돌로 새로 지은 건물로, 마루에는 춘설헌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마루 원죽으로는 작품활동을 하던 2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는 온돌방이고 하나는 일본식 다다미방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며 “정비 사업을 통해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지난해 국가유산점과 협의를 거쳤고, 총사업비 6459만원(국비 3229만원·시비 1614만원·구비 1614만원)을 투입해 본관(1~5층) 내부 벽체 균열을 보수

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한국전쟁으로 건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직원과 학부모가 힘을 모아 1954년에 완공했다. 건물의 길이는 375m로, 건축 형태가 독특한 점 외에 설립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광주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며 “정비 사업을 통해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지난해 국가유산점과 협의를 거쳤고, 총사업비 6459만원(국비 3229만원·시비 1614만원·구비 1614만원)을 투입해 본관(1~5층) 내부 벽체 균열을 보수

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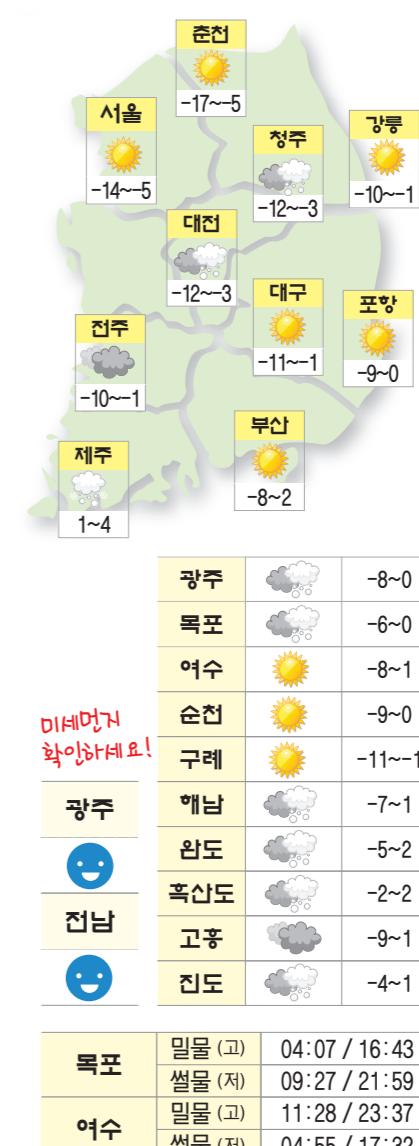
2026년 신가동 주민과의 대화 2026.1.21.(수) 14:00 신가동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과의 대화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6년 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박병규 구청장과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민과의 대화는 오는 2월 25일까지 21개 동에서 실시되며 민원 문제 해결 이전 단계에서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적극행정 철학을 반영한 ‘민원 전 민원 해결 1004’ 추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부의 국정 정책 철학과 연계한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해설 07:38  
해설 17:50  
일설 09:35  
일설 21:18



## 광주·전남 ‘동장군’ 지속

아침기온 영하 10도 안팎  
최대 10cm 많은 눈 예보

22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22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이 되었고, 낮 기온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로 예보됐다. 찬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10도 가량 더 낮겠다.